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4, No.3 (May 2004) pp.1~11

조선후기 기녀의 머리형태가 일반여성의 머리형태에 미친 영향

임 영 자* · 조 미 영**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동원대학 피부미용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Hostess's Hair Shapes in the Last of Chosun Dynasty on the Modern Ladies Hair Shapes

Young-Ja Lim* · Mi-Young Cho**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air Dressing & Aesthetics, Tongwon college**
(2003. 9. 15 투고)

ABSTRACT

As Confucian ideology dominated all over the society, the androcentric patriarchical society in the last of Chosun Dynasty produced the unequ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It was traditional hostesses(kisaengs) who uniquely had an occupation among the women in this society. In modern society, they are reinterpreted as ' fashion leaders' or ' professional career women with expert knowledge and it caused a lot of the studies of them to be in a progression vigorously.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on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hostesses(kisaengs)-who were educated and permitted in ther social activity formally in a Confuanism-governed society which forbided a woman to participate in a social activity and which did not gave ladies any formal education. The general hostess in the beginning time of the Chosun Dynasty imitated the hair shape of women in the yangban family which formed the highest class in the Chosun Dyansty and it reflected their aspiration for the highest social class. Howerver, coming into the last age of the chosun dynasty, a reverse phenomenon -that women in the yangban family imitated the general hostesses' hairstyle -occured due to the spread of a genre painting & the concubine system. The general hostesses were educated systematically and did social activity and influenced hair shapes as they were independent economically and their influence in the part of hairstyle appeared as great and high EONJIN MEURI and as one-sided EONJIN MEURI. Regarding-as the result of this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hostess's hair shapes on the ladies hair shapes in the last of Chosun Dynasty -that the traditional hostesse of the last age of chosun dynasty played a role as a fashion leader of the ladies at the same age , the general hostesses in Chosun Dynasty should be revaluated... And the study of ladies which were hidden behind the scenes of Confuanism

Corresponding author: Young-Ja Lim, E-mail: limyj@sejong.ac.kr

should be made much more.

Key words : traditional hostesses(kisaengs)(기녀), Eonjin Meuri(얹은머리)

Ⅰ. 서 론

현대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과거에 객관화되었던 사실들을 색다른 시각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시대 직업을 가진 중·하층 여성들의 삶은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시로 채택하면서 상하·존비·귀천의 신분계급의 구별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만들었으며, 여성들에게는 '삼종지의(三從之義)'[1]를 내세워 복종만을 강요하였고, 남·녀 내외법을 통해 사회진출을 막았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불리한 시대에서도 여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공적, 사회적 지위를 얻었던 이들이 기녀(妓女)이다.

기녀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예를 가진 기능직 여성'으로[2] 엄격한 유교관과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유가 제한되면서 검소한 복식착장(服飾着裝)이 요구되었던 일반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 제약을 덜 받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사치스러운 복식착장(服飾着裝)이 허용되었고[3] 유교사상이 지배한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남성들의 접근이 허용되면서 때로는 일반 부녀자들에게 관심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과 시기는 조선후기에 오면서 복식과 머리형태의 모방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기녀 복식의 특징인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치마가 부풀어지는 현상이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얹은 머리형태 역시 고대(高大)해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서 천시되어 역사의 장으로 묻혀 있던 기녀를 전문직 종사자와 패션의 리더[4]라는 현대적 시각에 맞춰 조선후기 가장 화려했던 기녀의 머리형태가 일반 여성의 머리형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조선시대 후기로 제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풍속화 중 기생과 일반 여성의 머리형태를 분류·고찰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에 따른 조선후기 여성들의 지위와 생활을 고찰해 본 후 이에 반하여 사회참여가 많았던 기녀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을 통해 화려해질 수밖에 없었던 기녀의 머리형태를 살펴보았으며 신분구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배층 남성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녀들의 머리형태인 고대한 얹은머리 형태와 한쪽으로 치우친 얹은 머리형태가 일반여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연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교사상과 여성의 생활

조선 건국의 주도자인 신흥사대부는 고려 멸망의 원인을 불교의 타락과 여성들의 자유분방함에 있다고 생각하여[5] 숭유억불정책을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였고 정치, 문화, 사상계의 지도적 근본이념을 유교로 삼아 교육(敎育), 의례(儀禮), 과거(科擧)제도를 재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사회적·윤리적인 면에서 유교적인 규제를 가하여 남성위주의 사회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강력한 왕권중심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분제도와 가족제도의 필요성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 관존민비(官尊民卑),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위계질서에 따른 신분제로 정비하였고, 사회의 근본단위인 가족제도는 직계장자를 위주로 하는 가부장 중심으로 개편하였다.[6] 조선중기는 개국공신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가 쇠퇴하고 지방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사림파가 득세하면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유교윤리를 더욱 확산시켜 가부장

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오면 사회구조 속에 유교이념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정치윤리, 정책내용, 행동규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쳐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7]

여성들의 생활은 조선전기까지는 비교적 활발하고 자유로웠으나[8] 조선후기에 오면 유교적 윤리관인 내외법이 보편화되면서 가정은 유교적 이념과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고[9] 여성들의 생활은 더욱 억압받았다. 특히 내외법은 일반 서민 부녀자에 비해 반가 부녀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 공식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10] 그에 반해 내외법의 영향을 덜 받은 일반 서민 부녀자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결혼제도에 있어서도 남자들에게만 축첩제도가 인정되어 합법적으로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릴 수 있었던 반면, 이혼녀나 과부들에게는 재혼금지가 더욱 강화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열악해졌다.[11]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유교사회에 여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정식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가 부녀자들이 시(詩), 서(書), 화(畵)에 재주를 보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12] 심지어는 주택 건축에서도 안채[13]와 사랑채[14]를 각각 따로 구분했으며, 작게는 안방과 사랑방 내측과 외측을 두어 남·녀 생활을 격리시켰다.[15]

이러한 유교사상과 남·녀의 구분된 생활은 여성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면서 대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면서 얼굴을 매만지거나 거울을 대하는 빈도는 예전보다는[16] 빈번했으나 화장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들은 자연히 머리형태에 관심이 더욱 증가하여 가체의 사치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2. 기녀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신분제 사회에서 볼 때 기녀는 가장 낮은 천인계층인 노비(奴婢)신분으로서 사치노예(奢侈奴隷)로 취급되었고, 원칙적으로 관청에 예속된 관기로 15세부터 기안(妓案)에 올라 50세가 정년으로, 경자(京籍)에 오른 기는 경기(京妓), 지방의 기는 지방기(地方妓) 또는 외방기(外方妓)라고 한다.[17] 경기에는 내의원이나 혜민서의 의녀와 공조와 상의원의 침선비까지 포함되는데 구한말에는 이들을 통틀어 기생(妓生)이라고 하였다.

기녀들은 종모법(從母法)에 의하여 딸이나 조카에게 세습되었고, 주로 관비 중에서 충원되었으며, 고아 또는 빈곤하여 기가(妓家)에 팔리면서 기녀가 되기도 하였고, 지방 관아의 사족녀(士族女)나 양가녀(良家女)가 기녀의 화려한 생활과 권문세력가의 소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진하여 기녀가 되기도 했다.[18]

기녀들의 특권이라면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생계유지가 가능했고, 천인계층으로 시비(侍婢)를 거느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에 비해 신분적인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국가나 관련 관청의 특별한 지침 없이 관할 소속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기녀는 남·녀 상면을 금하는 유교적 사회 속에서 공식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여성으로 그들의 활동하는 무대와 상대하는 남성들은 광범위하였다. 위로는 궁중내의 연회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민간인의 잔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였고, 상대하는 남성들도 국왕, 왕자, 정부관리, 학자에서 일반 민간인까지 폭이 넓었다.[19] 이처럼 남성들을 상대하거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기녀들에게 춤과 노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일한 공교육 기관인 장악원(掌樂院)[20]에서 체계적으로 춤과 노래를 배웠으며 재능이 있는 경우 글씨와 그림도 공부하였다.

당시 일반 여성의 교육은 가정에서 행해졌던 반면 기녀들에게는 집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기생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하여 기녀들은 유교의 법도에 얽매인 부녀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노래와 춤 때로는 시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과 애환을 숨김없이 토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몸치장에 정성을 들인 것으로 보이며 복장사치(服裝奢侈)의 허용과 가체를 이용한 화려한 머리형태가 발달하였다고 생각한다.

<표-1> 기녀와 일반 여성의 생활과 사회적 지위 비교

구분 / 분류	기녀	일반여성
사회적 지위	천민	양반 중인 양인 천민
사회활동	남성들과 함께 사회활동 할 수 있었음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음
경제력	있음	없음
교육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음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김
결혼	첩으로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지 않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결정됨

3. 일반여인의 머리형태

상대사회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은 얹은머리, 쪽진머리, 푼기명머리, 땋은머리, 묶은 중발머리, 쌍상투의 머리형태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대체로 습용되어 왔으며 조선시대 초에는 출가녀(出家女)는 얹은머리, 쪽진머리, 미혼녀는 땋은머리, 묶은 중발머리 등을 하였다.[21]

조선 중기에 오면서 몽고(蒙古)의 수식(修飾)을 본 받아 반가부녀자의 머리에 체(일종의 가발로 다리, 다래, 달비, 월자, 차라고 불림)를 사용하여 풍성하게 치장하여 꾸민 얹은머리가 크게 유행되면서 일반 서민 여성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었다.[22] 그러나 일반 서민 여성들의 머리형태는 반가 부녀자와 같이 틀어 올린 머리이긴 하나 제머리로 또는 작은 다리를 드려 빗은 것으로 반가 부녀자 것보다 머리의 크기가 작았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문란해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고자 유교사상이 더욱 강화되어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여인들은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욱 열중하면서 일반 여성의 얹은머리형태는 더욱 고대해지기 시작하였다.

반가 부녀자의 경우는 고대하게 얹은머리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머리치장을 위해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생기고, 가난한 집에서는 시집 온 지 6~7년이 지나도록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올리지 못하는 패륜이 생기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23] 이러한 폐단은 영·정조시대에 이르러 부녀자의 가체금지령(加髢禁止令)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고계 양식인 얹은머리는 가체금지령에 의해 족두리로 대치되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여인들이 서로 다투어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유교사상에 입각한 남녀내외법과 양반 집 내정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24] 규중부녀를 단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조대에서는 가체를 대신 하는 쪽진머리가 완전히 실시되지 못하다가 순조 중엽에 가서야 비교적 간단한 후계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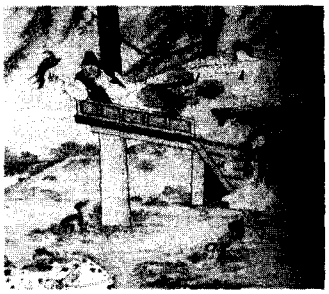
일반 서민부녀자들은 반가 부녀자들과는 달리 혼례와 동시에 출산, 육아, 농업노동, 가사노동, 직조노동 등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의 머리다발을 이용하여 얹은머리를 하였으며, 부를 축적한 농·상인층 부녀자들은 가체를 이용한 얹은머리를 하였다. 가체금지령 후에도 가체 대용의 족두리는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되지 못해 일반 여성들은 제머리를 이용한 얹은머리를 꾸준히 하였다.

Ⅲ. 기녀의 머리형태 분석

조선후기에 발전된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상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그림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과 시대정서 그리고 당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풍습을 알 수 있으며[26] 특히 풍속화에 자주 그려진 기생의 자태와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기녀들의 머리형태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풍속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은 화원 화가인 김희겸(金喜謙, 18세기)이 1748년에 그린 석천한유도(石泉閑遊圖)로 기녀들의 가체금지령이 내려지기 전의 머리형태를 볼 수 있다. 이 풍속화에서 보면 특이한 사실은 기녀의 머리형태에서 가체를 이용한 얹은머리와 쪽진머리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쪽진머리를 하고 있는 기녀는 〈그림 2〉처럼 동기(童妓)가 아닌가 사료된다. 그 당시의 고대한 얹은머리뿐만 아니라 뒷 목선을 완전히 덮는 쪽진머리도 기녀들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김희겸의
석천한유도(石泉閒遊圖)
(이태호, 전게서, p. 92)

〈그림 2〉는 김홍도(金弘道, 1745~1810)가 그린 부벽루연회도(浮碧樓宴會圖, 平壤監司饗宴圖)로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체금제령이 내려지기 전후로 그려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쪽 부분이 치우친 얹은머리를 한 기녀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고 쪽진머리를 한 동기(童妓)들도 끼여 있다. 그리고 쪽진머리 형태에서 특이한 점은 쪽은 두 개인데 하나의 비녀를 사용하여 쪽을 찌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궁중에서 견습내인(見習內人)들이 하는 생머리와 형태가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생머리는 머리를 뒤에서 반으로 갈라 땋아 내려가서 다시 밑에서부터 각각 양쪽으로 말아 올려 자주색 끈으로 중허리를 묶어 주는 것[27]에 반해 동기들의 머리형태는 자주 끈 대신 비녀를 사용하여 쪽을 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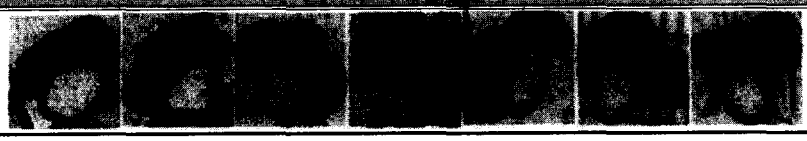
<그림 2> 김홍도의 부벽루연회도
(浮碧樓宴會圖, 平壤監司饗宴圖)
(국립국악원, 전게서, p. 192)

〈그림 3〉은 신윤복(18세기 중엽~19세기 초반)이 그린 청금상련(聽琴賞蓮)으로 남성의 복식을 통해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노란색 호박 갓끈이 달린 갓과 도포에 두른 자주색의 세조대(細條帶)는 당상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28] 이를 통해 상류층의 양반들임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걸 맞는 외적, 내적인 미를 갖추기 위해서 기녀들의 외모는 선정적이고 화려하게 가꿀 수밖에 없었으므로 자연히 얹은머리는 고대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얹은머리는 크면 클수록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종조(成宗朝)에서는 성중(城中)이 고계(高髻)를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일척(一尺)이나 되었고, 연산군조(燕山君朝)에서는 가체(加髢)의 사치가 성행하였으며, 영조조(英祖朝)에서도 체의 비용이 백금(百金)에 이르러 모두 파산할 지경이라는 내용[29]이 있을 정도로 여인들은 가체를 이용한 풍성한 얹은머리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서민 부녀자들은 가체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반가 부녀자들의 경우는 유교적 법규에 의해 남성들과는 격리된 생활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연히 남성들이 바라는 기녀의 상은 정숙한 아내가 아닌 풍류를 알고 자신들의 눈을 즐겁게 하며, 체면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는 여인상을 원했으므로 기녀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고대한 얹은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료된다.

<그림 3> 신윤복의
청금상련(聽琴賞蓮)
(강명관, 전게서, p. 162)

〈그림 4〉는 신윤복이 그린 유곽쟁웅(遊廓爭雄)으로 기녀의 머리형태가 앞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윤복은 남녀의 성정을 노출시킨 소재나 기방의 유흥과 여성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

<그림1-7>



였기 때문에[30] 기녀의 얹은머리 형태 역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하게 고대해진 얹는머리 형태에서 벗어나 본인들의 교태를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해 가체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장식했다고 사료된다.

<그림 4> 신윤복의
유곽쟁웅(遊廓爭雄)
(강명관, 전게서, p. 129)

〈그림 5〉는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정(端午風情)으로 기녀들에게도 가체금지령이 내려진 전후로 그려진 풍속화이다. 이 풍속화에서 보면 기녀의 얹은머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얹은머리의 양이 많아 가리마선이 보이지 않는 머리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5> 신윤복의
단오풍정(端午風情)
(강명관, 전게서, p. 78)

〈그림 6〉은 유운홍(1797-1859)이 그린 기생이라는 작품으로 가운데 앉아 있는 기녀가 땋은 머리다발을 머리에 두르려고 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얹은머리 형태가 고대해지면서 땋은 머리다발이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는 계(髻)를 서로 겹치도록 틀어 얹었으며, 보다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고려시대의 추마계(墜馬髻)[31]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얹은머리형태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그림 5〉보다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가리마선이 보이지 않으면서 한쪽으로 머리다발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신윤복이 그린 생황 부는 여인으로 여기에서도 땋은 머리다발이 서로 겹쳐지도록 틀어 얹은 기생의 머리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6> 유운홍의 기생들
(강명관, 전게서, p. 121)

<그림 7> 신윤복의 생황 부는 여인
(강명관, 전게서, p. 165)

Ⅳ. 기녀의 머리형태가 일반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1. 고대한 얹은 머리형태

조선초기 기녀의 얹은머리 형태는 반가부녀자의 머리형태를 모방하여 상류층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오면서 기녀의 머리형태는 일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쳐 고대한 얹은머리가 유행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실학자 청정관 이덕무(1741-1793)의 『靑莊館全書』에서는 규방의 부녀자들이 기생의 옷으로 단장하고 있다며 개탄하였고[32] 사대부들이 규중의 부녀자들에게 기녀의 옷차림을 권하여 이를 따랐다는 기록을 통해 머리모양도 의복과 더불어 기녀의 모습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이러한 영향은 엄격한 유교관에 의해 모든 자유가 제한되었고 검소한 복식착장(服飾着裝)이 요구되었던 반가 부녀자에게 기녀의 자유스러운 생활과 복장사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그들의 고대한 얹은머리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서민 부녀자 역시 유식(遊食)하면서도 복장사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부러워하면서 기녀의 고대한 얹은머리 형태를 모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영조(英祖) 32년 1월에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신하도록 한 가체금지령[34]과 33년 12월에 부녀자의 체계를 금지하고 궁양식(宮樣式)인 후계(後髻)로 대신하지만 상인(常人)이나 천인(賤人)은 체계(髢髻)를 그대로 두라는 가체금지령이 내려졌고[35], 그 후에도 몇 차례 가체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반해 정조(正祖)12년 10월에 내려진 가체금지령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는데[36] 그 중에 정조(正祖) 12년, 비변사(備邊司)에서 올리는 가체(加髢)를 신금(申禁)하는 8개의 절목(節目) 중에 상천(常賤)의 여인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자와 공사천(公私賤)은 본발(本髮)로써 머리 얹는 것을 허용하되 첩체(貼髢)와 가체(加髢)을 금하는[37] 가체금지령이 내려졌다.

신분의 뚜렷한 구별과 사치를 줄이고자 한 영조는 반가 부녀자의 가체사용만을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고대(高大)한 얹은머리는 사회 문제가 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정조 12년에 공사천(公私賤)인 기녀들에게도 쪽머리가 아닌 본발(本髮)로만 얹는머리가 허용되는 가체금지령이 내려졌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조(正祖)는 영조(英祖) 때의 가체금지령과는 달리 공사천(公私賤) 여인의 얹은머리도 단속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된 노동을 하던 공사천 여인들의 가체를 단속하였던 것보다는 자유로운 복장사치가 가능했던 기녀의 머리형태를 단속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후 고대한 얹은머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순조 중엽에는 전국 부녀가 체(髢)로 머리 얹는 법을 없애고 자기 머리로 뇌후(腦後)에 가로로 쪽을 찐 후 작은 비녀를 꽂는 것이 풍속이 되어[38] 반가 부녀자 사이에서는 후계 양식인 쪽진머리가 정착이 되었고, 기녀의 머리형태 역시 19세기 중반과 후반 사이에 고대한 얹은머리 형태가 점차 감소되어 19세기 말에는 쪽진머리와 본발만을 이용해 얹은 듯한 머리형태가 나타났다.[39]

이것으로 보아 엄격한 유교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분구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배층 남성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반 여성들이 기녀들의 머리형태에 영향을 받아 고대한 얹은머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사대부의 한 평생을 여덟 폭에 그린 화원풍(畵員風)의 평생도[40] 중에 회갑연(回甲宴)으로 제작연도를 알 수 없지만 부녀자들의 짧은 저고리 길이와 얹은머리와 쪽머리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로 짐작된다.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가 부녀자라고 추측되는데 그들은 쪽머리에 족두리를 하였고 반회장저고리를 입고 있는 일반 부녀자들은 가체를 이용한 고대한 얹은머리를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는 기녀의 옷과 머리형태에 영향을 받아 일반 서민부녀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1605(선조 38년)년 4월 삼청동(三淸

<그림 8> 평생도 ~ 回甲
(「韓國의 美 民畵」, 중앙일보, p. 128)

洞) 공해(公廨)에서 70세 이상의 노모를 모신 13인 재신(宰臣)들이 열었던 경수연(慶壽宴)의 장면을 19세기에 모사(模寫)한 것으로 대청에서 자제가 부인들을 향해 절을 올리고 대청 아래에서 다른 자제(子弟) 두명이 서로 마주 보고 춤추고 있는 장면이다.[41]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반가 부녀자들의 머리형태는 얹은머리 형태를 하고 있으며 가야금을 연주하는 기생들의 머리형태 역시 얹은머리 형태를 하고 있다. 이 시기의 기녀들의 머리형태는 고대한 얹은머리를 하였고 반가 부녀자 역시 그림에서 보듯이 기녀들의 머리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선묘조재재경수연도
(국립국악원, 전게서, p. 152)

2. 한쪽으로 치우친 얹은 머리형태

얹은머리 형태가 고대해지면서 땋은 머리다발이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계(髻)를 서로 겹치도록 틀어 얹었으며, 다른 기녀들과 차별화를 두면서 보다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한쪽으로 치우친 얹은머리 형태로 표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기녀들의 짧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가 일반 부녀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한쪽으로 치우진 얹은머리 형태 역시 반가 부녀자와 일반 서민부녀자 심지어는 하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0〉은 신윤복의 이부탐춘(簁婦貪春)으로 상중의 여인이 몸종과 함께 개의 짝짓기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상복을 입고 있는 여인은 기와를 얹은 담장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 지체가 높거나 부유한 상류층의 여인으로 보인다.[42] 상복을 입은 여인의 얹은머리 형태 역시 땋은 머리다발이 서로 겹치도록 하여 머리 위에 얹었고 풍성한 머리다발로 인해 가리마 선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철저한 유교사회에서 반가 부녀자들이 기녀의 머리형태를 모방할 수 있었던 것은 풍속화의 보급으로 인해 기녀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43], 축첩제도로 인해 젊고 아름다운 기녀가 첩으로 들어오면서 반가부녀자들이 소박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들의 자구책으로 기녀들의 복식뿐만 아니라 머리형태 역시 많이 모방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0> 신윤복의
이부탐춘(簁婦貪春)
(강명관, 전게서, p. 33)

〈그림 11〉은 신윤복이 그린 정변야화(井邊夜話)로 한밤중에 물을 긷는 아낙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그 중에 서 있는 여자는 민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우물가에 앉아 있는 다른 여자는 녹색 저고리에 옷고름만 자주색일 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 서민부녀자 이거나 반가의 여종으로 사료된다. 일반 서민부녀자들 역시 머리형

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가리마 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신윤복의
정변야화(井邊夜話)
(강명관, 전게서, p. 48)

〈그림 12〉는 신윤복이 그린 여승과 여인이라는 작품으로 장옷을 쓴 여인네가 여종과 함께 절로 가는 길에 삿갓을 쓴 비구니가 마중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하녀의 머리형태 역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가리마 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신윤복의
이승영기(呢僧迎妓)
(강명관, 전게서, p. 78)

〈그림 13〉은 신윤복의 무녀신무(巫女神舞)로 굿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그림 중앙에 쌀이 담긴 소반 앞에서 손을 비비고 있는 여인과 그 옆에 앉아 있는 여인의 머리형태 역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얹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가리마 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손을 비비고 있는 여인에 비해 그 옆에 앉아 있는 여인의 얹은머리가 더 고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신윤복의
무녀신무(巫女神舞)
(강명관, 전게서, p. 232)

V. 결 론

조선시대 후기는 유교사상이 사회전반을 지배하였으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바로 기녀들이다. 이들이 현대에 오면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 또는 '패션리더'라는 쪽으로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기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시키고, 공식적인 여성교육을 하지 않던 유교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회활동을 인정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여성인 기녀의 머리형태가 일반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 건국의 주도자인 신흥사대부는 고려 멸망의 원인을 불교의 타락과 여성들의 자유분방함에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들에게 사회적·윤리적인 면에서 유교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내외법을 강요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막았고,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혜택을 주지 않아 남자에 비해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며 내외법의 영향을 덜 받은 일반 서민부녀자들은 고된 노동에 의해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그에 반해 기녀들은 15세부터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되어 음률과 춤 그리고 글씨와 그림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았고, 일반 부녀자와는 달리 사회활동을 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하였다.

이것은 머리형태에 영향을 주어 고대(高大)해진 얹은머리 형태와 한쪽으로 치우친 얹은머리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1-7 >

조선초기의 기녀의 얹은머리 형태는 반가 부녀자의 머리형태를 모방하여 상류층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오면서 풍속화의 보급과 축첩제도로 인해 반가 부녀자들이 기녀들의 모습을 모방하는 반대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후기는 고대한 얹은머리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기녀의 얹은머리는 더욱 고대해졌고, 이것은 일반 부녀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유행시켰다는 것을 풍속화와 문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녀의 고대한 얹은머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가름마 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 형태 역시 반가 부녀자와 일반 서민부녀자 심지어는 하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풍속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엄격한 유교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분구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배층 남성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반 여성들은 기녀들의 머리형태에 영향을 받아 고대한 얹은머리 형태와 한쪽으로 치우친 얹은 머리형태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기녀의 머리형태가 일반 여성의 머리형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론을 고찰을 통해 일반 부녀자들의 패션리더의 역할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녀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유교의 그늘 아래 묻혀 있던 여성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출가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의 사후에는 아들에게 복종한다는 뜻이다.
2) 이배용 외 (2002).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서울: 청년사, pp. 117-118.
3) 박영미 (2002). 조선후기 가체 유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75.
4) 이배용 외. 전게서, p. 156.
5) 권태연 (2000). 조선시대 기녀의 사회적 존재 양태와 섹슈얼리티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9.
6) 백혜리 (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11.
7) 송찬섭 · 홍순권 (2000).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 136.
8) 이영화 (2003).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가람기획, p. 161.
9) 이배용 외. 전게서, pp. 164-165.
10) 이영화. 전게서, p. 118.
11) 정성희 (1998). 조선의 성풍속. 서울: 가람기획, p. 36.
12) 이성미 (2002).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대원사, p. 28.
13) 안채에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방, 대청, 건너방, 부엌, 반빗간 등으로 구성되며, 안방은 안주인의 상징이며 부엌은 안주인의 권리가 행사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즉 조선시대 내외의 관념에 따라 주부의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주부는 '안살림'이라고 하는 주거 내부의 가족 생활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14) 사랑채는 사랑방, 대청과 누마루, 침방, 서고, 사당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채와 독립되어 있다. 이중에서 사랑방은 손님의 접대 및 문객들과의 대화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인의 일상 거처실로 가부장적 가족제도였던 만큼 사랑방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15) 이배용 외. 전게서, p. 165.
16) 이연복 · 이경복 공저 (2000). 한국인의 미용풍속. 서울: 월간 에세이, p. 25.
17) 이석래 (1973). 李朝의 여인상. 을유문화사, pp. 134-135.
18) 조광국 (2000). 기녀담 · 기녀등장소설의 기녀 자의식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19.
19) 김정미 (1992). 우리나라 기녀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16.
20) 기녀들의 교육기관으로 미모와 재능이 있는 자를 선출하여 단장을 시키고, 기녀에게 필요한 교양인 가무(歌舞)와 예절(禮節), 습속(習俗)등을 학습시키는 곳이다.
21) 유희경 (1993).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75.
22) 이영주 (2000). 조선시대 가체 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17.
23) 구남옥 (2000). 조선시대 복식 변천에 나타난 동조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 55.
24) 정상숙 (1997). 한국 여성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37.
25) 정상숙. 전게서, p. 37.
26) 이태호 (1996).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학고재, pp. 136-139.
27) 김용숙 (1996).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pp. 47-49.
28) 강명관 (2003).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서울: 푸른 역사, p. 163.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31.

29) 유희경. 전게서, p. 398.

30) 이태호 (2002). 풍속화. 서울: 대원사, pp. 113-114.

31) 말에서 떨어졌을 때 여자들의 머리모양과 같다는데서 나온 명칭이다. 김동욱(고려도경,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9, p 127)은 낭자가 한쪽으로 기운머리라고 주를 달았고, 유희경(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3, p 159」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볼 수 있었던 '새앙머리'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고, 최숙경은 河回假面의 각시상의 머리형태와 비슷하다고 하였다.(김혜정 (1992). 고려시대의 기녀복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57)

32) 이태호 (2002).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학고재, p. 253.

33) 박영미. 전게서, p. 76.

34) 英祖實錄 32年 1月 甲申, 禁士族婦女加髢 代以俗名族頭里 加髢之制.

35) 英祖實錄 32年 甲戌, 命禁中外婦女髢髻 代以後髻.....중략.....常賤人則仅用髢髻

36) 유희경. 전게서, pp. 276-277.

37) 正祖實錄 12年 10月 辛卯, 常賤女人 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并許令以本髮加首 而貼髮加髢之制 名別禁斷

38) 김용문 (1982). 우리나라의 수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33.

39) 이영주. 전게서, p. 88.

40) 중앙일보 (2001). 韓國의 美. 民畵, p. 217.

41) 국립국악원 (2001). 조선시대 연회도, pp. 219-221.

42) 강명관. 전게서, pp. 32-33.

43) 노현숙 (1994). 풍속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반서민 복식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12.